

사순절 두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IN LENT

주후 2020년 3월 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4장 “전능 왕 오셔서” (새1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0 번 시편(Psalm) 2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히브리서(Hebrews) 4:12-16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찬양과 경배 메들리”	찬양대
설 교 Sermon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384 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 585)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23 장 “주께로 한 걸음씩” (새 53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당부 하셨지만,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오히려 붙잡으려 했고, 붙잡아야 할 십자가를 도중에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졌고,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좇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의 신앙과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눅 9:23, 벰전 2: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한글개역 **히 4:14**)

“Therefore,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NIV **Hebrews 4: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8 (주일)	3/9 (월)	3/10 (화)	3/11 (수)	3/12 (목)	3/13 (금)	3/14 (토)
	출20	출21	출22	출23	출24	출25	출26
본문	눅23	눅24	요1	요2	요3	요4	요5
	욘38	욘39	욘40	욘41	욘42	잠1	잠2
	고후8	고후9	고후10	고후11	고후12	고후13	갈1

재/의/수/요/일/ 찬/양/집/회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11 오후7:30)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민 9:1-14)
토요 새벽기도회 (3/14 오전6:30)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눅 11:1-4)

지난 주일(3/1)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 (히 4:1-11)

오늘 본문(히4:1-11)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안식은 (단지) 힘든 일을 중단하거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태, (더 이상) 고통과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을 장소적 개념(가나안-히3:11,18), 시간적 개념(안식일-히4:3,4,9), 종말론적 개념(하늘의 예루살렘-히12:22)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안식이 다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히4:11)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1)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화합해야 하며(히4:2,6), 2)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늘 머물러야 하며(히4:10), 3)셋째, 우리 마음의 강박함과 순종치 않으려는 패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 신학자(Marva Dawn)는 “참된 안식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멈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며,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